

2010.12.06 미래정책연구실

□ 곡물수출금지 조치 결과, 예상보다 심각할 수도

1. Financial Times(2010.11.29) 주요 내용

- 주요 수출국의 수출제한조치는 전세계 공급에 있어 큰 공백(Large hole)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는 최근 발간한 '글로벌 곡물위기의 영향 (Reflections of the Global Food Crisis)' 보고서에 따르면, 곡물위기 당시 주요 수출국들의 수출제한조치가 곡물위기를 전면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함.
 - 또한 수출금지조치나 매점매석과 같은 여러 교역 충격(Trade shock)은 과거 분석에 도입된 다른 어떤 요소들보다 중요한 단기적 요소(Short-term factor)였다고 언급함.
- 이와 같이 전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수출제한조치의 정당성에 대해 찬반양론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음.
 - <반대> 케이트 연구소(Libetarian Cato Institute)의 살리 제임스는 WTO가 이에 대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DDA가 출범하던 2001년 당시 곡물가격의 장기적인 하락세, 수입국의 높은 무역장벽, 수출국의 보조금 문제 등 인위적인 가격하락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수출제한조치는 DDA에서 논의된 바 없음.
 - <찬성> 교역 및 농업 담당자, 상품 트레이더 및 애널리스트들은 첫째, DDA는 여전히 협상이 진행중이므로, 현재의 DDA Frame-work 만으로 포함 여부를 논하기는 어려운 점, 둘째, 비록 WTO에서 원칙적으로 수출 제한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수출국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수출제한 조치는 국제무역 원칙상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한편, FAO는 이와 관련하여 '2007-2008년 식량위기 시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보고서(the Use of Export Restrictions During the 2007-2008 Food Crisis)'에서 수출제한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수출제한조치를 취하기 전에 수입국에 정보를 제공(Formal notice)해야 한다는 원칙이 유명무실하다는 점, 매우 높은 수출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수출제한조치와 다른없는 조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한 바 있음.

2. 시사점

- 우리나라는 세계 3위의 곡물 수입국으로서 수출국의 수출제한조치로 인해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2010년도 러시아의 밀 수출금지 조치 영향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 필요

□ 중국, 식품가격 통제 위에 생산 증대 촉구

1. Wall-Street Journal(2010.11.25) 주요 내용

- 중국 정부가 최근 식품가격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생산자들로 하여금 채소 생산을 확대하도록 촉구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채소 생산면적을 7% 증가, 채소 생산량을 7.5%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을 농업부 홈페이지에 게재함.
 - 이는 2009년 1.8%, 2008년 3.3%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China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 역시 농산물의 생산 부족 해소를 위해 농업생산 및 유통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농업 분야에 자금 지원도 확충할 것이라고 밝힘.
- 이후 국가개발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에서 면화, 고무, 식용유, 설탕, 구리 등 주요 품목의 가격안정대책을 발표함.
 - 또한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투기세력에 대한 견제도 계속될 것임.

- 이같은 엄격한 정책이 시행된 지 2주만에 일부 식품가격이 하락하기 시작 하였으며, 정책적 실효성을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새로운 관리 대상은 주로 채소 가격으로, 생강, 마늘 등과 같이 올들어 두 배 이상 가격이 상승한 품목을 대상으로 함. 이에 비해 옥수수 가격은 30-60% 수준으로 비교적 가격 상승폭이 적음.
 - 중국 정부는 식품가격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정책 수단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곡물 등 비축량 감소로 인해 가격안정정책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함.
 -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 비축량 증량을 주장

2. 시사점

- 전세계적으로 식품가격이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중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최근 생필품 및 주요 민감품목에 대한 물가안정대책을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중국 농산물 가격은 국내 농산물 가격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향후 중국의 식품가격 및 생필품 물가안정정책의 시행 과정 및 결과를 예의주시할 필요

*자료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